

강아지 로봇과 책 고르고 같이 읽어요

GIST, AI독서활동지원로봇 개발 어린이 맞춤 도서 추천·위치 안내 표정·소리 움직임으로 교감도 가능

최근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즐거는' 독서 체험을 제공하는 신기술 독서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어린이 독서 활동을 돕는 '도서위치 안내로봇'과 'Read to a Robot' (일명 포메, 강아지 모양 로봇)를 개발해 다음달 3일(일)까지 토, 일요일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메는 포메라니안 품종 반려견의 약자다.

주관연구기관인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김경중)는 전국 공공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에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산하려고 '인공지능(AI) 기반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로봇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연구책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홍국 교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어린이의 심리 특성을 반영해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UI/UX(사용자 환경·경험) 및 지속 가능한 서비스'와 어린이의 독서 흥미 유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작용형 로봇 소프트웨어(SW)' 및 '독서활동 지원 로봇' 2종을 개발했다.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7세부터 10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 활동을 돕는 로봇 시제품 '도서위치 안내로봇'과 'Read to a Robot(포메)'를 소개하고, 기술 검증에 나선다.

도서관에 배치되는 '도서위치 안내로봇'은 자료



지스트가 개발한 'Read to a Robot' (일명 포메, 강아지 모양 로봇)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스트 제공>

실을 다니며 어린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책을 추천하고 도서 위치를 찾아 준다. 강아지 모양의 'Read to a Robot(포메)'는 소리 내어 책을 읽는 어린이의 다양한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걸맞은 표정을 짓거나 꼬리를 흔들며 어린이와 교감함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소와 공동연구기관(울산과학기술원(UNIST),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인터플로우(株))은 독서활동 지원 로봇 시제품 및 검증, 촉각센서 사용자 행동 및 의도 파악 기술 '서버 기반 감정분석·표현 시스템 고도화'와 '터치 기반 행동

패턴에 따른 로봇 제어 통합', '도서위치 안내로봇의 고도화', 'Read to a Robot(포메)' 시제품 검증 등을 통해 확장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경중 연구소장은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로봇 서비스가 성공적 시범 운영을 거쳐 앞으로 많은 공공도서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도서관에 단순히 책을 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듯 로봇과 함께 책을 고르고 찾아 강아지 로봇과 교감하며 책을 소리 내어 읽는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대화형, 몰입형 방식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세계 상위 2% 과학자에 17명 선정

美 스탠퍼드대, 연구역량·업적 인정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최근 과학, 기술, 의학분야의 학술 연구 출판 및 정보 분석 기업인 '엘스비어'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발표한 '2024 세계 상위 2% 과학자 리스트'에 17명의 연구자가 이름을 올려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업적을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는 22개 주요 학문 분야, 174개 세부 주제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 중 'SCOPUS'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산출된 논문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해 선정한다.

연구자의 생애 업적 부분으로는 임성철(의예과), 김형기(건축공학과), 최철희(의예과), 김태규(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과), 나만균(원

자력공학과), 안동규(기계공학과), 박형준(산업공학과), 조흥현(기계공학과), 모상만(컴퓨터공학과), 변재영(정보통신공학부) 등 10명의 교수가 선정됐다.

또한 2023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는 김형기(건축공학과), 안동규(기계공학과), 무하마드 예셀 아라파트(IT연구소), 조흥현(기계공학과), 박윤경(의생명과학과), 한미아(의예과), 모상만(컴퓨터공학과), 장해춘(식품영양학과), 기성환(약학과), 최현식(전자공학부), 강양준(기계공학과), 변재영(정보통신공학부), 최철희(의예과) 등 13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이 중 6명(김형기, 최철희, 안동규, 조흥현, 모상만, 변재영 교수)은 두 개 기준에 모두 포함돼 조선대는 총 17명의 연구자가 상위 2% 세계 과학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학과 입시 홍보부스 운영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는 최근 제10회 남구 어울림 평생학습축제에서 학과 입시 홍보 및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임형택 명예교수가 삶의 고민을 듣고 지혜를 찾아가는 인생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평생교육학과 대학원 졸업생들도 입학 홍보와 진로 및 학습상담을 진행했다. <광주대 제공>

광주-부산 학생의회 교류 첫걸음...전국 최초 업무협약 체결

의회 운영 정보·성과 공유 상호협력 부산·김해 일대서 역사·문화 체험

광주-부산 학생의회가 전국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의 첫걸음을 뒀다.

광주학생의회와 부산학생의회 등 85명은 최근 부산과 경남 김해 일대에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광주-부산 학생의회는 의회 운영 정보 및 성과 공유,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교류활동 기간에 학생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생태문화 체험학습 ▲학생의회 어울림 한마당 ▲지역별 학생의회 사례 나눔 ▲학생의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통했다. 또 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고등의회 김서영 부의장은 "이번 행사 주제처럼 광주학생의회가 학생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국 학생의원들과 소통하고 학생 의견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학생의회 이다인 의장은 "부산에서 광주의 학생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의미있는 교류를 했다"며 "내년에는 '의향·예향·미향의 도시' 광주를 방문해 광주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학생이다"며 "학생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교 1곳당 의약학계열 수시 지원 '평균 82건'

의대 증원 여파...작년보다 16%↑, 내신 2~3등급대 학생들도 지원

고등학교 한 곳당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의약학 계열을 지원한 건수가 평균 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파로 1년 전보다 지원 건수가 10건 이상 늘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의약학 계열 수시 지원 건수는 총 14만7천70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고등학교 수(1천795개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체능고 제외)를 고려하면 고등학교 한 곳당 의약학 계열 수시로 82.3회 지원한 셈이다.

2024학년도 수시에서 고등학교 한 곳당 의약학 계열 수시 지원 건수는 70.8건이었는데, 1년 사이 16.2% 증가한 셈이다.

의대 지원자만 보면 고교당 평균 40.3건으로, 1년 전(31.9건)보다 26.3% 증가했다.

전국 6개 권역 가운데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지역인재전형 지방권 고교 지원 건수는 의약학 계열 기준으로 지방권 고교 평균

29.2건으로 나타났다. 작년(16.5건)보다 역시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평균 35.9건 지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충청권(35.4건), 대구·경북권(32.8건) 등 순이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좁혀보면 지방권 고교 평균 18.4건으로 나타났다. 1년 전(7.9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수시 지역인재전형 확대 여파로 의대를 노리는 비수도권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충청권(26.4건), 대구·경북권(21.2건), 강원권(16.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종로학원은 "한 학생당 최대 6회 수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평균적으로 고교당 13.7명 이상이 의약학 계열에 지원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의약학 계열에 지원한 내신 1등급대 학생뿐 아니라 2~3등급대 초반대 학생들 역시 의약학 계열로 초집중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